

문화 예술의 꽃 '컴퓨터 음악'

80년대 후반 창작컴퓨터 기법 도입

프로 컴퓨터 작곡가 발굴 과제로 남아

컴퓨터의 기능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요즘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예술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신문사는 컴퓨터 아트 중 음악·미술·비디오 분야를 다루어 요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김규현
<음악평론가>

20세기 들어오면서 국내 문화시장의 꽃은 컴퓨터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컴퓨터 음악이 있기 이전의 컴퓨터 예술은 단지 산업사회의 업무용을 돕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때 당시(국내 70년대 이전)에 하드웨어는 80평이 넘는 공간을 차지하는 거물이었다. 약 30여년이 지난 오늘날(90년대)은 그것의 몇배나 축소되어 소형화됐고 최첨단의 다기능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필수품화됐다. 그리고 예술계에서는 창작을 위한 도구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다. 오늘날 컴퓨터 음악은 볼란서의 라디오방송 기술자 겸 작곡가인 웨퍼가 창안한 구체음악과 독일작곡가 스토하우젠과 아이베르테에 의해서 1950년대 초반에 그 기본적인 작곡기법으로 만들어진 현대음악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격적으로 현대음악이 작곡된 것은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가 개발되어 국내에 들어온 이후(1983년)라고 볼 수 있겠다. 80년대가 되면서 국내 전자음악계는 순수 창작음악 발표회를 갖게 된다. 그 이전에는 열악한 작업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컴퓨터 음악의 역사

한국 최초의 전자음악은 강석희의 '원색의 향연'(1966년 작)이라고 하겠다. 그 뒤(1970

년대) 나인용의 '전자음악과 플루트를 위한 십자가의 환상'(1980년 작), 그리고 허영환, 진규영, 장덕산 등의 작품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때 당시(1970년대 후반)사용한 전자악기는 Mini moog, ARP Odyssey 등이었다.

국내 음악계에 세계의 전자음악과 컴퓨터 음악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강석희다. 그가 주관하는 제1회 범음악제(1976년)를 통해 소개한 것이 컴퓨터음악의 불모지였던 국내 음악계에 큰 충격이었다.

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창작음악계는 창작컴퓨터 음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자음악단체인 전자음악연구회가 황성호, 진규영, 허영환, 이진용, 유병은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이 모임은 연봉제로 명칭이 바뀌면

서 안두진, 이인성, 장정인 등을 영입해 문예대극장에서 전자음악작품 발표회(1987년)를 갖게 된다. 이때 사용된 기기들도 상당수가 다기능의 최신것들이었다. DSS NEC9801 DX711F 등이 그것들이다.

연봉제에서 연봉제로 다시 활성화에 기여했고 전자음악작가양성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즉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예술전문대, 추계대학교 등에 대학 스튜디오를 개설해 창작을 위한 전자음악 교육을 한 것이다. 오늘날 국내 전자음악단체인 1993년 창립한 한국전자음악협회(회장 황성호)와 부산전자 음악연구회(회장 최인식) 등이 존재하고 있고 각 대학에 전자음악모임이나 전자음악 동아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 전자음악 협회는 매년 후반기에 3일간

컴퓨터 음악제를 예술의 전당에서 열고 있다.

취약한 컴퓨터 음악

컴퓨터가 일부 부유층이나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됐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 그것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품목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반면에 다기능화된 컴퓨터의 올바른 교육이 제대로 안된 기 때문이다. 특히 창작 컴퓨터 음악계는 더욱 열악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안되어 있다. 최근에는 몇몇 대학교의 음대들이 교양과목으로

열악한 우리나라 음악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전자음악의 대중화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사진은 전자음악을 이용한 외국 음반

국립은 순서

1. 음악
2. 미술
3. 비디오

의 품격과 예술적 가치성은 갖고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된 최신기기(Macintosh, IBM, Atri 등)를 갖고 있으면서 창의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제에 그 원인이 있다.

앞으로의 전망

서구의 현대음악 작가들이 3, 40년전에 쓴 전자음악은 오늘날 와서도 뛰어넘는 작품이 없다는 것은 역시 창작컴퓨터 음악 교육부제에 있다. 미래음악의 꽃으로서 컴퓨터

음악 창작은 고도의 기법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게 때문에 전문교육은 필연적이다. MIDI와 CD-ROM 개발은 이것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는 프로 컴퓨터음악 작가가 출현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창작과 올바른 창작컴퓨터 음악교육의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컴퓨터 마인드는 작가라면 필수다. 그것은 컴퓨터 음악의 무한성 표현을 낳게 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컴퓨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음악으로서의 컴퓨터 음악은 20세기의 꽃이 될 것이며 기존 음악의 사고와 양식을 뒤엎는 철학과 미학을 낳는 최첨단의 예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음악은 미래음악의 상징이다.

이번 시리즈는 격주 12면 제작시 문화(12)면에 게재됩니다.

문화현장

연극 - 콘트라베이스

'멍에'를 지고가는 우리인생

김재훈
<연극 기획자>

내가 그분을 처음 대할때 그 감정은 연기가 라기 보다는 기획자로써 알고 있었다. 아니 좀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연극 배우보다는 영화에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니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연극을 접하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할일이 일어났다.

그 분이 하는 공연 '콘트라 베이스'는 (파트릭 쿼킨드라원작 김태수 연출) 나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작은 음악회를 보는 기분이었다.

작품이 처음 진행되는 부분부터 그분의 스타일이 많이 배어 있었다. CF광고로 시작해서 자신의 인생 얘기가 주를 이루면서 중간 중간에 연극의 형식을 빌려 왔다. 연극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는데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다행히도 프로 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낫다.

연극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연극인들을 위해서 명성을 갈아 주는 일반 하신단 분이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엔 경희대의 부탁이 오지 않았어도 보고 싶었다.

오래전부터 간접적으로 자주 봤다. 내가 공연하고 있는 극장 2층에 그분의 사무실이 있

어서 오고 가는 길에 자주 뵈었는데, 나 하고는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개그맨 선배이신 전유성씨가 오셔서 소개시켜 주면서 교류를 갖게 되었다. 공연을 보면서도 이제까지 내가 접해왔던 그분 연기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것이다. 처음 얘기했듯이 명계남씨가 연극배우 인줄을 알았지만, 최근에는 기획쪽에 일을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에 연기하는 것을 보기에는 쉽지 않았다. 기획쪽에는 그분을 마디스 손이라고 애기하고 싶다. 그분이 손을 댔던 작품은 소위 대박이 터진 것이다.

내가 그분을 처음 대할때 그 감정은 연기가 라기 보다는 기

획자로써 알고 있었다. 아니 좀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연극 배우보다는 영화에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니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연극을 접하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할일이 일어났다.

그 분이 하는 공연 '콘트라 베이스'는 (파트릭 쿼킨드라원작 김태수 연출) 나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작은 음악회를 보는 기분이었다.

작품이 처음 진행되는 부분부터 그분의 스타일이 많이 배어 있었다. CF광고로 시작해서 자신의 인생 얘기가 주를 이루면서 중간 중간에 연극의 형식을 빌려 왔다. 연극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는데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다행히도 프로 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낫다.

연극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연극인들을 위해서 명성을 갈아 주는 일반 하신단 분이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엔 경희대의 부탁이 오지 않았어도 보고 싶었다.

오래전부터 간접적으로 자주 봤다. 내가 공연하고 있는 극장 2층에 그분의 사무실이 있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이였다. 사실 연극가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한여름밤의 꿈'이나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두 시간 동안은 혼돈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연극의 묘미를 삽입했으니 그나마 일반 관객이 이해를 했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얘기가 없이 곧바로 극 자체만 이끌고 갔다면 결코 이해가 쉽지 않았으리라 두 시간 동안 지켜 보면서 무엇 보다는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내뱉는 대사가 최소한 몇 만자는 되었으리라. 그 몇 만자의 느낌은 '콘트라 베이스'를 사랑하는 주인공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토막 명제가 아닌가 싶다.

문화단신

구로동연가

- 80년대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삶과 사랑을 내용으로 다룬 작품
- 우리의 삶을 우리와 친근한 음악적 방식으로 승화시킨 의미있는

작품
· 문호근, 원창연(극본), 김정환(연출), 최정서(음악감독)
· 4월 2일(수)~13일(일)
· 대학로 소극장
· ☎ 762~9130

에쿠오스

· 에쿠오스란, 라틴어로 '말'이라는

뜻.
· 폴리지 않는 삶의 고민, 충돌할 수 있는 자유들로 우리의 삶 뒤돌아 보게 하는 작품
· 김아라(연출), 오준영(음악), 무대 미술(박동우)
· 4월20일(일)까지
· 문화예술관 서울 두레극장
· ☎ 764~5262

쌍둥이

· 2차 공개오디션
· 4월15일(토) 오후 1시
· 쌍둥이회관(4호선 회화역 4번 출구)
· 대상:97, 96학번
· ☎ 744~7303

컴퓨터교육과정

강좌명	주요내용	강사	일정
컴퓨터개론	현대생활에 필수적인 컴퓨터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감을 갖도록 기초지식을 소개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교육을 실습을 통해 컴퓨터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과정-컴퓨터의 기본이해/컴퓨터 구조 소개/조작법/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소개/한글 MS-DOS 및 한글 윈도우 소개/한글 워드프로 소개 및 실습	변정우 정우 호명영 전문대학 교수	1학기 (16주) 매주 월·수 18:30~20:00
윈도우엑셀	컴퓨터에 대한 약간의 지식(워드프로세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Windows 95 교육과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중에서 엑셀과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인 파워포인트를 소개하고 실습한다. *윈도우 95-기본구조 소개/부팅/시스템/휴지통/이론/마우스 사용/멀티미디어 *엑셀-설치/실행/문서작성/편집/그래픽화트/인쇄/데이터베이스/데이터분석/설계 *파워포인트-메뉴와 아이콘/프레젠테이션	한정수 정수 경명학 경명학부 강사	1학기 (16주) 매주 월·금 18:30~20:00
PC통신인터넷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각종 받고 있는 PC통신과 인터넷 교육으로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검색 능력을 기른다. 특히 통신이나 인터넷 사용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아낼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추어진 본교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습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PC통신-원리/실행/서비스/정보 찾기/통신망 접근/자료 주고받기/대화방 *인터넷-구성/접속/IE-메일/WWW 통신 여행(국내·국외)/웹/홈페이지/정보사상	이태로 태로 고려대 보건전문 대학 교수	1학기 (16주) 매주 수·금 18:30~20:00

사회체육과정

강좌명	주요내용	강사	일정
스포츠댄스	사교춤(스모트댄스=볼룸댄스=생활댄스)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즐기는 88올림픽과 있으며, 2000년 시드니올림픽 시범종목에 채택되어 그 예술성과 함께 스포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올바른 지도를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킨다. *교육과정-포스 트로트/차차차/볼리스/자이브(Jive)/디스코/왈츠/맘보/자루박	김진수 진수 88올림픽 체조경기 경기부장 본교 체육교수	1학기 (16주) 매주 화요일 18:30~20:00
다이어트무용	무용으로 스트레스와 일의 중간간을 덜고 유연한 몸매와 건강 증진으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발생적인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리듬감과 유연성을 기른다. *교육과정-바른 자세/호흡법/스트레칭/점프/워킹/보디스윙/듀엣 무용/바디컨디셔닝/차밍댄스/리드미댄스/제즈댄스	조성희 성희 본교 무용과 강사 서울현대 무용단원	1학기 (16주) 매주 목요일 17:30~19:00
검도교실	정통검도로서의 검도를 이해하고 스포츠 이상의 목적설정과 심도깊은 접근으로 완전한 인간을 지향(인격수양과 심신단련)한다. *교육과정-검도수행의 방법/이동/타격/실전/기술/대치의 철학/사리론의 사의 검법/사리론의 이의 검법/기술숙달의 단계적 설명/격투기로서의 공방술/진검승부	김재일 재일 검도8단 대한한 검도회 원·수·교 사	2학기 (32주) 매주 월·수·금 19:00~20:30

수영교실

구분	시간	요일	반별	수강료(3개월)
초·중·고 수영교실	06:00~07:00	(전)월~금	①초급반	162,000원
	07:00~08:00	(전)월~금	②중급반	
	08:00~09:00	(전)월~금	③상급반	108,000원
	09:00~10:00	(월)·수·금 (화)·목·토	④연수반	162,000원
	10:00~11:00	(월)·수·금 (화)·목·토	⑤연수반	
초·중·고 수영교실	11:00~12:00	(월)·수·금 (화)·목·토	①초급반	108,000원
	12:00~13:00	(월)·수·금 (화)·목·토	②중급반	
	13:00~14:00	(월)·수·금 (화)·목·토	③상급반	
직장인 수영교실	18:00~19:00	(전)월~금		162,000원
	19:00~20:00	(전)월~금		
	20:00~21:00	(전)월~금		
강좌기간		매월1일부터 3개월 단위 강좌		
접수기간		매월 세째주부터 말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사회교육원으로 문의바람.
· Tel : 961-0870/961-0871/961-0872/961-0873

서울캠퍼스 사회교육원

열린사회,
열린교육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이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줍니다.